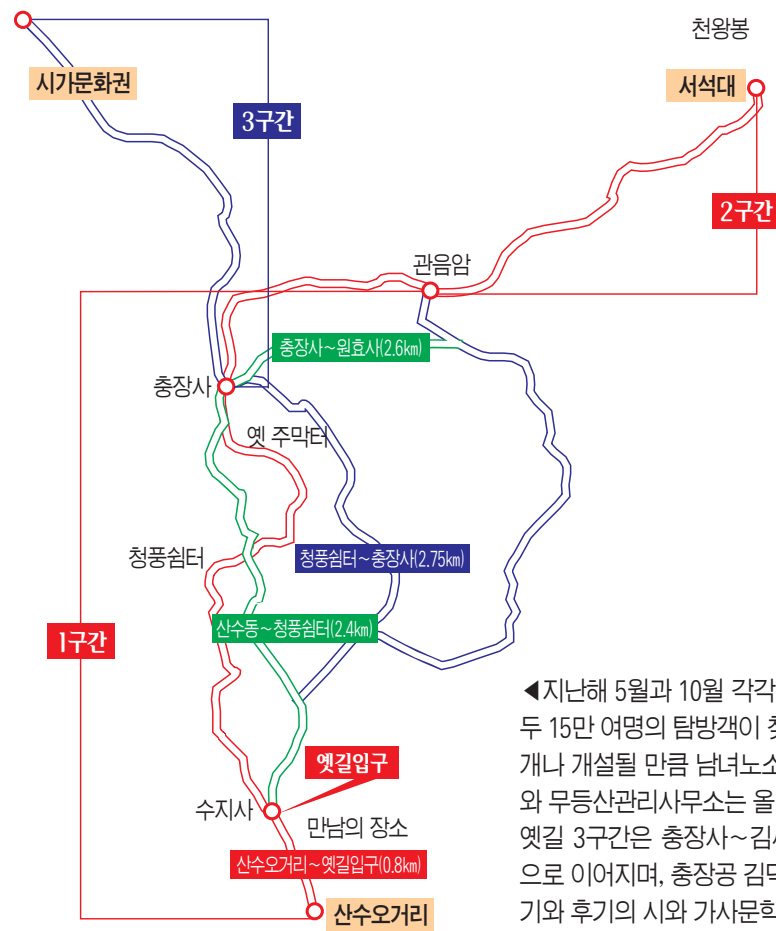




무등산 옛길 1구간 초입인 잣고개를 넘고 있는 탐방객들. 멀리 뒤편으로 광주 도심이 한 눈에 들어온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야기가 밝히는 길

알고 가면 더 재미있는 무등산 옛길



옛 흔적 찾아 더디게 열린
1구간~3구간 19.87km
소금장수·김삿갓 쉬었다간
주막엔 선인들 숨결이...

◀ 지난해 5월과 10월 각각 일반에게 공개된 무등산 옛길에는 최근까지 모두 15만 여명의 탐방객이 찾았다. 인터넷에는 옛길과 관련 블로그가 140여 개나 개설될 만큼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무등산관리사무소는 올 하반기 옛길 3구간(역사길)을 개방할 예정이다. 옛길 3구간은 총장사~김씨제각~샘바위~풍암정~호수생태원~환벽당으로 이어지며, 총장공 김덕령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총장사, 조선 중기와 후기의 시와 가사문학이 창작된 공간을 연계해 복원된 길이다.

무등산 옛길을 걷는다. 길은 본래 소통의 공간이다. 인공구조물이 넘쳐나는 도시의 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동차와 콘크리트 건물, 아스팔트 도로, 그 속에 어울리지 못한 가로수, 그리고 바쁘게 지나치는 사람들이었다. 소통보다는 소외, 뒤돌아보기보다는 앞만 보면서 내달리는 우리는 도시의 '사막함'을 절감했다.

걷는 이유는 목적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걷는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과거 누군가가 걸었고, 미래 누군가가 걸어야 할 수 있다. 생각은 그저 시간이 남아도는 어떤 이의 감상적인 연상에 불과했다. 그런 의미에서 무등산 옛길은 무등산이 광주에 준 또 하나의 선물이다. 나뭇가지와 바위 틈을 지나며, 사각사각 소리를 내는 낙엽을 밟으며, 사람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다람쥐에게 눈을 빼앗기며, 우리는 진정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자연과 소통하며, 비로소 앞에서 함께 걷는 사람과 소통하게 된다.

잣고개를 넘는다. 가파르지만, 어려운 길은 아니다. 시간에 쫓길 필요 없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면 된다. 차로 5분이면 넘어갈 고개,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잣고개의 속살을 볼 수는 없다.

소금장수길이 구비 구비 펼쳐진다. 영산강을 따라 광주에 도착한 소금은 이름 없는 소금장수의 지계에 실려 길을 따라 무등산 너머에 전해졌다. 그 소금장수는 물론 나무꾼과 약초꾼, 나그네까지 힘겨운 산행에 목을 축였던 샘터도 자리하고 있다. 그랬으리라는 상상 속에 장소는 상징성을 갖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무진고성의 동문이 있었던 동문지를 나서 시인 김삿갓의 시 구절을 읊

하며 그가 거닐었다는 김삿갓 길 지나니 주막이 보인다. 산길에 지친 나그네에게 주막에서 맛보는 막걸리와 국밥만큼 진수성찬은 없었을 것이다. 과거를 기억해 복원된 주막에서 옛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옛길의 또 다른 기쁨이다.

광주는 예나 지금이나 전야에서 여문 농산물이 거래되는 장터이다. 화순, 장성, 담양 등지에서 힘들게 싸낸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지계에 진 사람들은 배재를 넘어 광주에 다다를 수 있었다. 갈림길인 이 고개를 넘으면 일란 의병장인 김덕령 사당 총장사와 조선의 명품인 분청사기 가마터 등이 있다.

총장사에서 원효사로 오르는 길, 조금 더 오르면 원효사 너털, 즉 풍화로 부서진 암석이 산비탈을 덮은 돌밭이 나그네를 맞이한다. 경관이 뛰어나며 과거 생명을 잉태하고 결실을 맺게 하는 명당이라고 전해진다. 돌밭 위에 걸터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무등산을 느끼는 것도 좋을 일이다.

이 부근에는 전라좌도 암행어사 민달음이 1857년에 이곳을 지나간 사실이 새겨져 있는 어사바위가 있다. 또 그 왼편에 굽뿔림과 추위로 죽은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나무아미타불'이 새겨져 있는 바위도 볼 수 있다.

원효사에서 서석대에 이르는 가파른 길은 걷는 이를 더욱 지치게 한다. 그러나 지친 심신에 조용히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는 더욱 맑게 가슴을 울린다. 무아지경. 사람의 숨소리마저도 소음이 되는 이 길 위에서 옛 선인들의 제철유적지, 주검동과 만난다. 치마바위 길을 흐르는 용추계곡은 지금껏 이 옛길에서 흘린 땀을 식혀주는 공간이다.

무진고성의 동문이 있었던 동문지를 나서 시인 김삿갓의 시 구절을 읊

무진고성의 동문이 있었던 동문지를 나서 시인 김삿갓의 시 구절을 읊

/공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선조들이 걸던
무등산 옛길 개통을 축하합니다.**

(주)한국그린피아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동 111-1
TEL: 010-940-12095 FAX: 025-116-1971
홈페이지: www.kgreenpia.com

유정엔지니어링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구암동 111-1
TEL: 010-2011-1111 FAX: 062-882-1111
E-mail: yje@yje-engineering.com
홈페이지: www.yje-engineering.com